



# 나홀로 폭락한 한국 증시, 디커플링의 원인과 향방

2026년 10월 12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

기관 투자자 핵심 브리핑 - 시장 리스크 진단

## KOSPI CHART



## KPI INDICATOR

**KOSPI**  
**6,384.24**  
**-241.69pt (-3.65%)**  
두 달 만에 최저치

## KPI INDICATOR

**KOSDAQ**  
**849.19**  
**-43.08pt (-4.83%)**

오픈AI 거품론과 AI 인프라 투자 의구심이 촉발한 반도체주 투매로 한국 증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.

**삼성전자**  
(-4.20%)

**SK하이닉스**  
(-4.22%)

**LG화학**  
(-8.90%)

**기계**  
(-6.72%)

**의료정밀**  
(-5.96%)

**음식료품**  
(+1.0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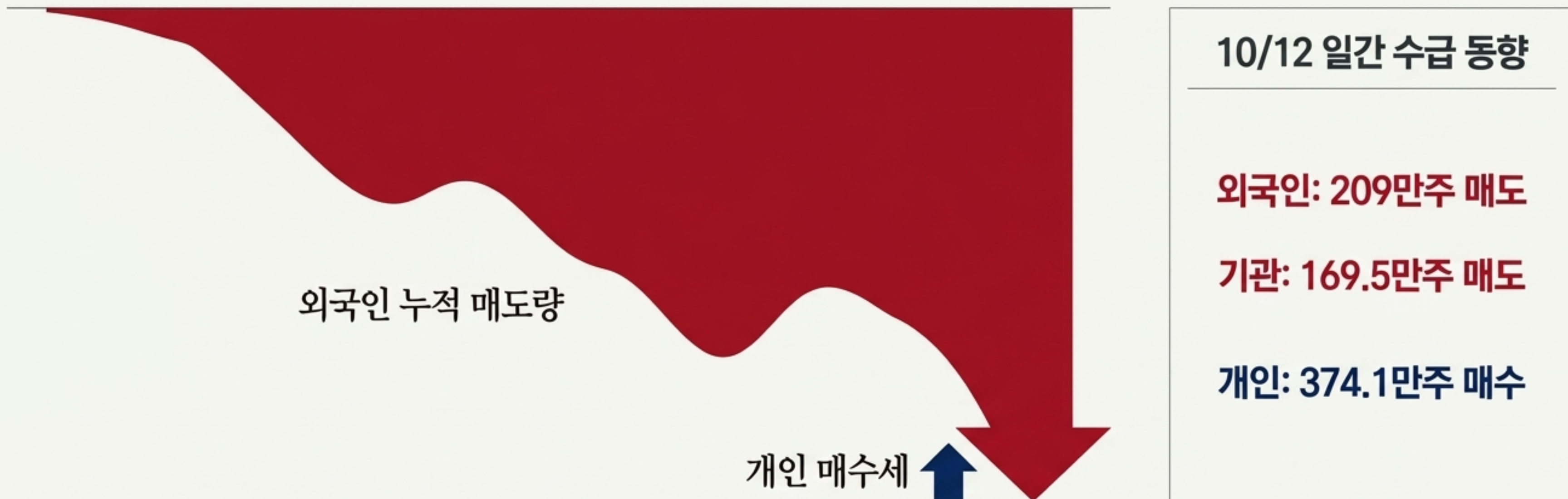
**기아**  
(+0.94%)

**보험**  
(+0.07%)

## 시총 상위주와 주도 섹터의 붕괴

- 삼성전자(1,467조원)와 SK하이닉스(1,176조원) 실적 호조에도 동반 4%대 급락 주도.
- 철저한 방어주(음식료품/보험)로의 자금 대피 현상 뚜렷.

# 올해 코스피 외국인 누적 순매도 200조원 돌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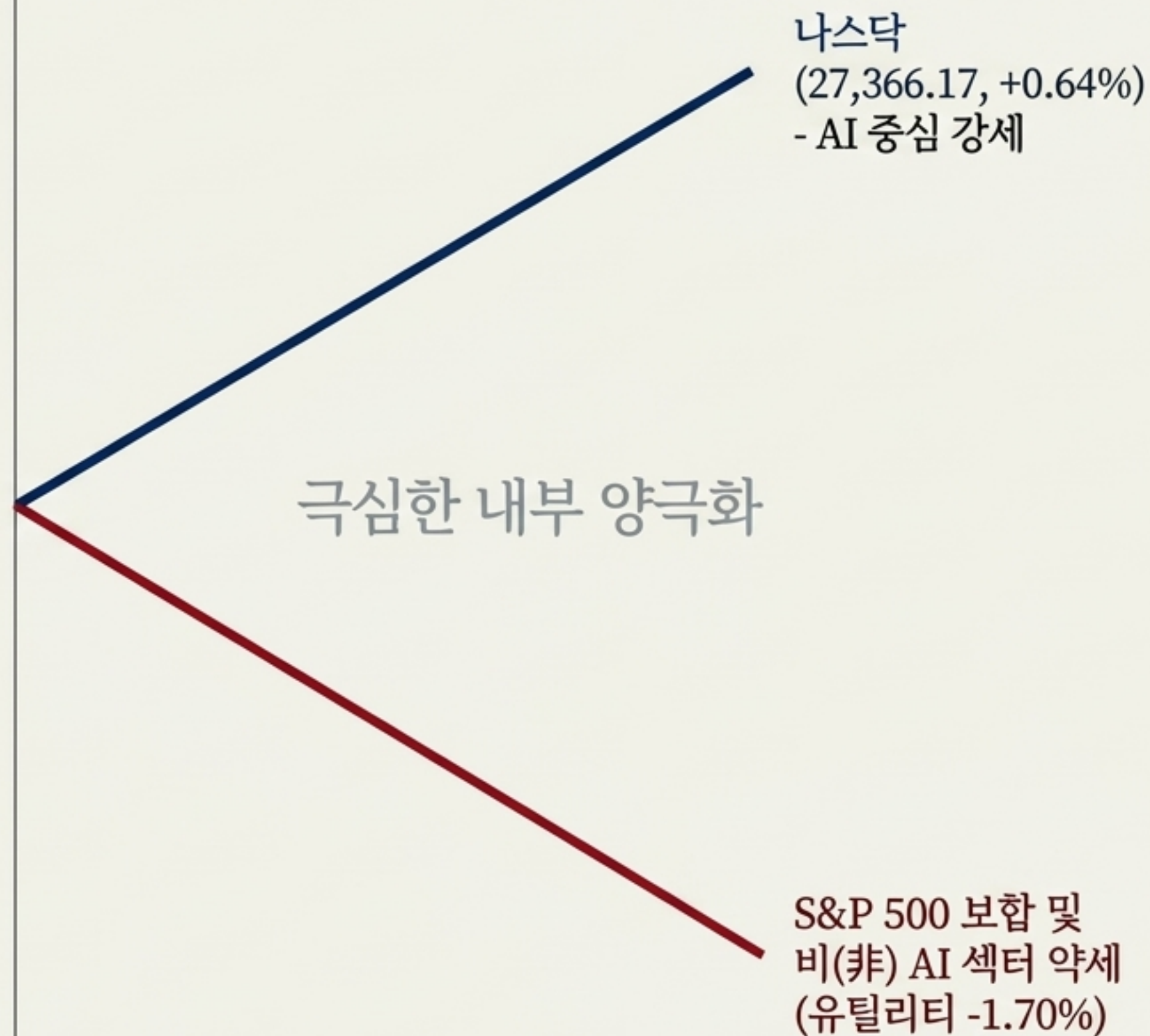
실적 펀더멘털과 무관하게, 외국인의 기록적인 자금 이탈이 수급의 댐을 무너뜨리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

**글로벌 악재가 아닌 ‘한국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’이 이번 폭락의 본질입니다.**

# 사상 최고치 속의 사상누각

1. 4년째 이어지는 강세장이나,  
철저히 AI 관련주에 편중됨.
2. AI 주식을 제외한 미국 증시의  
실제 성과는 유럽보다 부진하다.  
(시장 양극화 및 인터넷 주식군 급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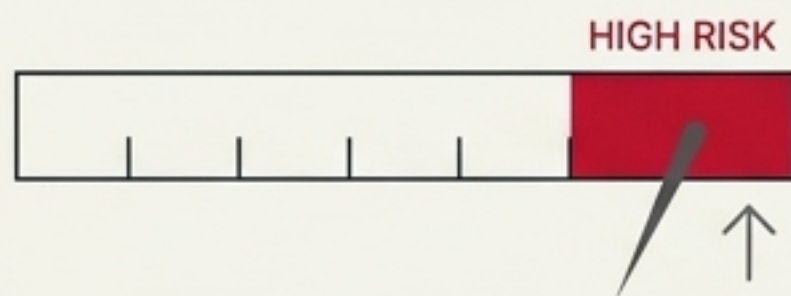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OSPI<br>(한국 증시)            | NASDAQ<br>(미국 기술주)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Valuation<br>(현재 위치)           | 상반기 고점 대비<br>'반토막' 잔혹사      | 사상 최고치 경신<br>(단기 상관계수 음수 전환) |
| Supply/Demand<br>(수급 주체)       | 200조원 규모의<br>외국인 엑소더스       | AI 인프라 투자 자금의<br>지속적 유입      |
| Macro Sensitivity<br>(매크로 민감도) | 고환율/고금리에 극히<br>취약한 수출 중심 구조 | 고금리 버퍼를 갖춘<br>메가테크의 시장 지배력   |

한미 증시의 동조화(Coupling) 공식은 깨졌습니다.  
KOSPI는 철저한 소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.

# FICC 위험 압력계: 전면적억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

미 국채 10년물 (Yield)



5.24%  
(+5bp)

FOMC 매파 기조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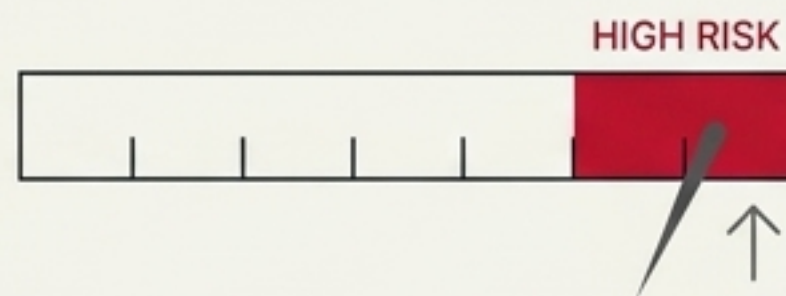
WTI 원유 (Oil)



\$90.73  
(+\$2.62)

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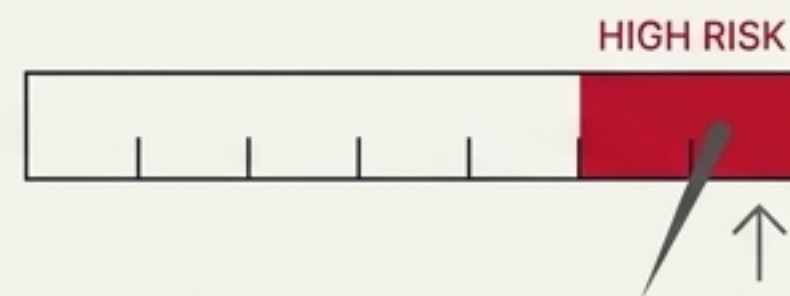
금 (Gold)



\$4,985  
(+\$18)

5천 달러 저항선 목전

비트코인 (BT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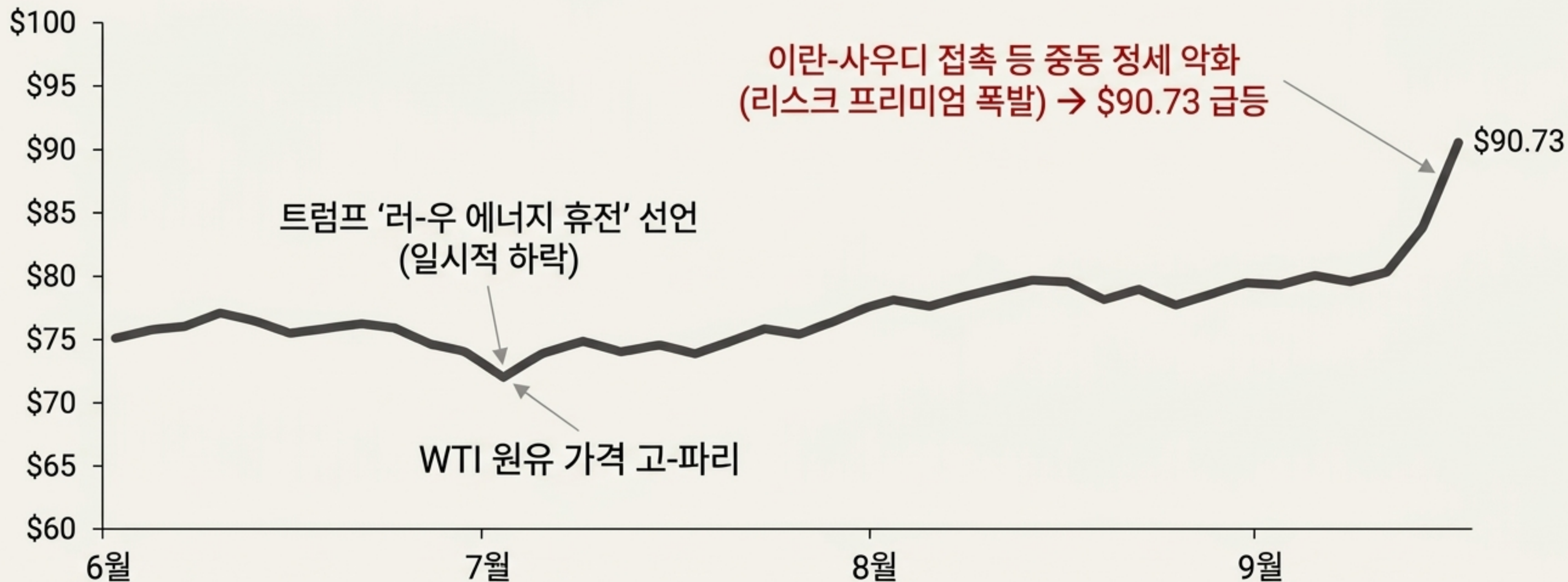


\$67,350  
(+\$1,240)

대안자산 쏠림

# 통제 불능의 에너지 인플레이션

WTI 원유 가격 (WTI Oil Price)



에너지 휴전 기대감이 무색하게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배럴당 90달러 위로 끌어올리며, 미 국채 10년물(5.24%)의 고금리 고착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.

# 안전자산 블랙홀: 금 (XAU) vs 비트코인 (BTC)

금 (XAU): \$4,985

지정학적 불안 속  
자산 대피처 역할.

\$5,000 저항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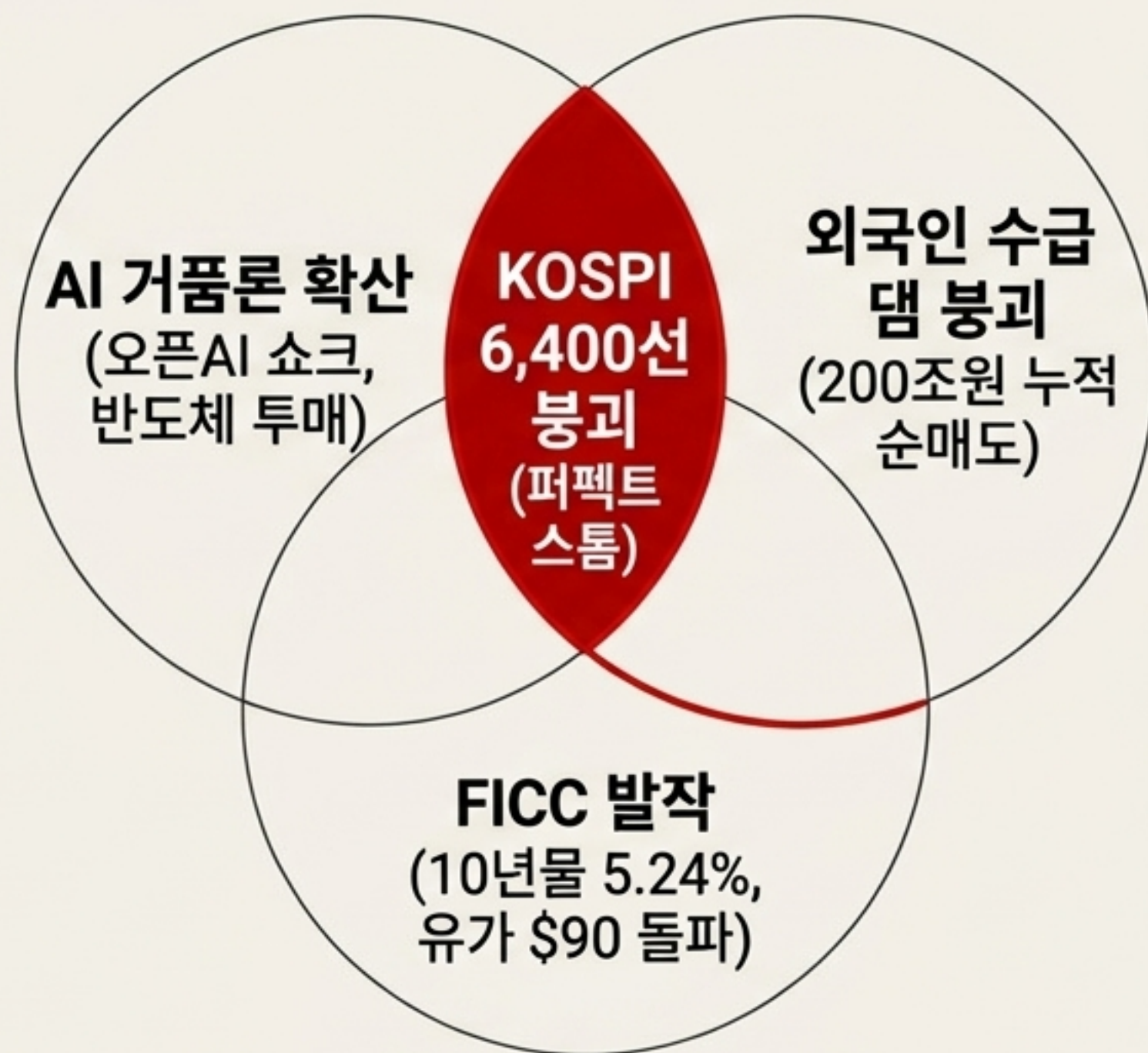
비트코인 (BTC): \$67,350

ETF 순유입 지속되며 '디지털  
금'으로서의 지위 강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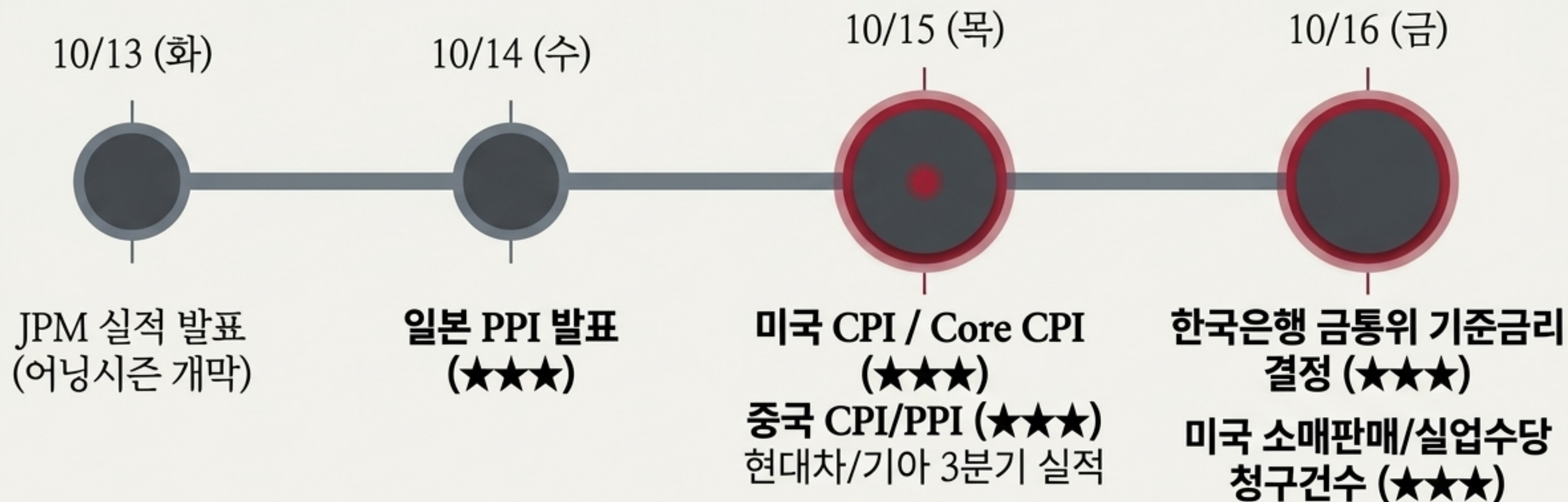
위험자산(주식)에서 이탈한 글로벌 자금이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 
양대 '안전자산 블랙홀'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.

# 글로벌 고금리 환경 고리 야형



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 AI 랠리 동력이 상실되자, 한국 증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며 기록적인 폭락을 완성했습니다.

# 주간 빅 이벤트 캘린더 (The Critical Path)



목요일(美 물가지표)과 금요일(한국은행 금통위)이  
하락장의 바닥을 가늠할 최대 분수령입니다.

# 글로벌 IB의 상반된 돌파구 전략

## JPMorgan: 구조적 성장 (Growth)

‘AI는 2027년에도 아시아 증시의 핵심.’

- 전략: 구조적 성장을 믿고 한국 및 대만 증시 ‘비중 확대(Overweight)’ 기조 유지.

## Goldman Sachs: 가치 방어 (Value/Defense)

‘저평가된 비(非) AI 주식에 주목하라.’

- 전략: 배당수익률 4%를 상회하는 극도 저평가 기업(예: 케이뱅크, 컴투스)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.

# 01

## 리스크 관리 최우선

외국인 200조원 매도 압력 및 한미 증시 디커플링 심화.  
단기 기술적 반등보다 하방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구간.

---

# 02

## 매크로 이벤트 확인

유가 \$90 안착 및 미 국채 5.2%대 진입.  
15일 미국 물가지표와 16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확인 전까지 보수적 접근 요망.

---

# 03

## 포트폴리오 재편

단기적으로는 4% 이상 고배당 비(非) AI 방어주(골드만)로 대피하되,  
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주 낙폭 과대 시점(JP모건)을 저울질하는 양면 전략 필요.